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과 장 이대원 042-481-5063 서기관 김승오 042-481-8659 사무관 최규영 042-481-876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12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4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아세안에 이어 동북아로, 한국 특허청 지식재산 국제협력 확대

-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 일본 고베에서 개최 -

-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가 막을 내린지 불과 1주일만인 12월 4일 오전 9시, 박원주 특허청장은 일본 크라운 플라자 ANA 고베 호텔에서 개최된 동북아(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했다.
- 올해로 19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역사적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맞물려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의 여세를 동북아시아로 이어가게 되었다.
-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총 인구 77억의 약 21%에 해당하는 16억의 인구수를 자랑하며 GDP 기준으로도 약 24%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도 한·중·일은 지재권 G5의 모임인 IP5*의 회원국으로서, 2018년 기준 전 세계 특허출원량의 62%를 점유하는 등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IP5(Intellectual Property5) : 세계특허출원 80%를 점유하는 미국 중국유럽·한국일본 특허청 회의체

- 이번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의 궁극적 목표는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이다.
- 최근 K-팝, K-뷰티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모방상품,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등이 대두되면서, 해외에서의 우리 상표권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이번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서는 특허 위주의 기존 3국간 협력 의제를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상표’ 분야로 처음으로 확대했다. 한·중·일 특허청장들은 한·중·일 3국은 물론 전(全) 아시아 시장에서 상표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그간 한·중·일 3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제도 조화, 심사품질 향상 등의 많은 성과를 달성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 한·중·일 차원에서 상표권 보호 논의를 지속함으로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의 성과인 아세안 내(內) 우리 상표권 보호 강화가 동북아시아로 확대되어, 아시아 전역에서 우리기업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